

진리·창조·봉사의 인재를 만드는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민주·인권·정의의 아이콘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을 무릅쓰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켰던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궁지로 가득한 대학의 역사는 새 시대의 희망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로서 광주전남의 발전을 이끌며, 국가 균형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천여명의 교직원이 3만여명의 학생과 함께 교육·학습하고, 연구·실험하는 등 곳곳에서 밤낮없이 불을 밝히고 있다. 38만 동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는 무려 1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전남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 완비된 전산시스템은 물론이고 첨단 학습 기법인 ▲ 프로젝트 중심 교육 ▲ 디자인 싱킹 ▲ 플립 러닝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융합대학'을 추가 설립했다. 지난해 개설한 로봇공학, 미래에너지공학, 빅데이터금융공학, IoT인공지능융합공학 등 융·복합전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광주캠퍼스에 ▲ 인공지능학부 ▲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 ▲ 빅데이터융합학과를, 여수캠퍼스에 ▲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 ▲ 석유화학소재공학과 ▲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등 모두 6개의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310명을 새로 뽑는다.

전남대는 62개국 557개 대학과 학술교류를 펼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2천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한 유학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언택트 사회에 기반한 COIL 프로그램, 온라인 기반 미국 대학생 연수 위탁 프로그램

(CLS), 온라인 유치 홍보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을 이끌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광장을 중심으로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학생문화 콘텐츠를 발굴·개발한다. 새로 조성된 '민주길', 제1, 2 학생회관, 518 광장, 용지 호수공원, 곳곳의 학생 라운지 등도 대표적인 대학문화 생태 공간이다.

정병석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진리를 탐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밝혀간다"며 "교시(校是)대로 진리를 밝히는 바른 사람, 창조하며 도전하는 사람, 봉사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 교목(校木)인 느티나무 같은 인재들로 가득한 느티나무 숲이 나날이 무성해 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앞선 지식·뛰어난 과학기술이 넘쳐나고 미래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세상에 빛이 되는 바른사람'을
키웁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0. 9. 23.(수) ~ 9. 28.(월)
| 홈페이지 | <http://admission.jnu.ac.kr>
| 문의전화 | 062-530-4731~4(전남대학교 입학과)